

# 공주시, "평생학습동아리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시민의 배움이 도시의 힘으로, 지역사회 건강한 학습생태계 구축



공주시 평생학습동아리 워크숍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지난 11일 행복누리 평생학습관에서 평생학습동아리 대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평생학습동아리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우수 사례 발표, 인공지능(AI) 활용 특강, 행복누리 시설 둘러보기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학습 환경에 맞춰 동아리 운영의 기획·홍보·운영 역량을 높이고, 활동 성과를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인공지능(AI) 활용 특강에서는 김호석 (주)인사이트크루 대표가 "AI를 통한 동아리 운영 방법"을 주제로 강의하며, 홍보 전략, 활동 기록·보관, 축제·행사 연계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활용 방안을 이론적으로 제시했다.

최원철 시장은 "평생학습동아리는 개인의 배움이 공동체의 신뢰와 도시의 경쟁력으로 확장되는 통로"라며 "작은 학습 모임이 돌봄과 문화, 자원봉사로 이어져 공주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힘이 되도록, 앞으로도 동아리와 함께 성장하고 협력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학습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주시 평생학습동아리는 인문, 교양, 미술, 체육, 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전시, 공연, 재능 기부, 마을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배움이 곧 지역의 힘"이 되도록 기여해왔다.

시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동아리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통합 홍보 체계와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찬옥 평생학습과장은 "공주의 평생학습동아리는 단순한 소모임을 넘어 시민이 학습으로 지역 변화를 이끄는 주체"라며 "앞으로도 동아리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금강뉴스] "2025년 평생학습동아리 역량강화 워크..."

[특급뉴스] 공주시, 11일 "평생학습동아리 역량강화 워크..."